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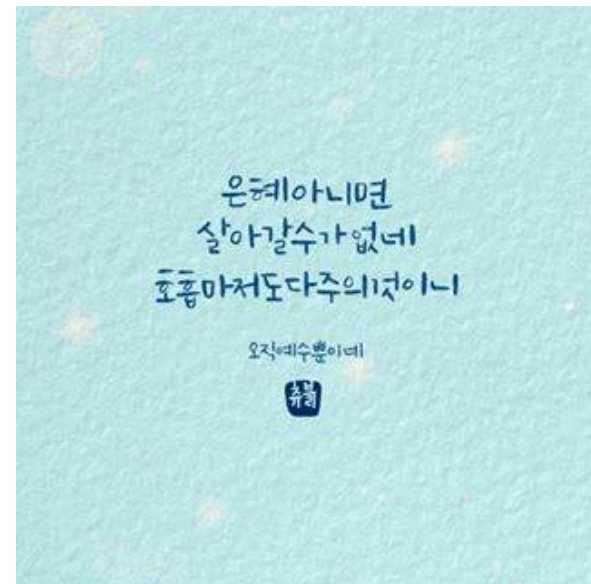
## 교회소식

2019. 10. 20. 116호

1.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인등록카드를 작성해 주세요.  
생일: Joshua Ferguson(10/23)
2. Hallelujah Day: 10/31 PM 6 교회 지하 친교실
3. 사무엘 하 성경공부: 친교 후 분당
4. 신앙도서리더스클럽 모임 : 예배 후 잠시 모입니다.
5. 다음 주는 예배 후 10월 생일축하와 식사친교가 있습니다.

지난 주 통계	
주일 헌금	CD \$10
감사 헌금	CD \$10
십일조	CD \$160
추수감사주일특별헌금	CD \$457
장년 출석	22명
어린이 출석	24명

함께 떡을 떼며 서로 발을 씻겨주는  
**다트머스 한인교회**



담임목사: 김 승 용

교회주소: 50 Ritcey Crescent Cole Harbour, NS B2W 6J8

연락처: 1-902-746-3566, mahanaim0904@gmail.com

[www.dartmouth-k-church.com](http://www.dartmouth-k-church.com)

# 주일 예배 순서

여는기도		인도자
찬 양		다함께
성경봉독	엡 1:20-23	인도자
어린이설교	교회, 그리스도의 몸	김승용 목사
대표기도		인도자
성경봉독	막 7:24-30	인도자
설 교	은혜 아니면	김승용 목사
교회소식		인도자
결단찬양		다함께
축 도		김승용 목사

## (어린이교회) 예배소서 1:20-23

- 20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 21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 22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 23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함이니라

## 마가복음 7:24-30

- 24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 25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 26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 27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 28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울소이다미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르기를 먹나이다
- 29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 30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 목회자 칼럼

한국 사람들의 민족성을 표현하는 이야기 중에 “평양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스개지만 한국 사람이 죽어서 천국 문 앞에서 베드로를 만났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을 향해 “너는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있으니 이 천국으로 들어와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베드로에게 “이 천국에 혹시 000도 있나요?”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럼 그 사람도 천국에 있단다.”라고 대답하자, 한국인이 정색을 하며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에이~ 그럼 저 천국에 안들어갈게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값은 매길 수 없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아마 교회에서 가장 자주 쓰는 말이 이 은혜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베푸시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한없는 이 은혜에 반응하는 성도들의 태도에 따라 어떤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은혜에 만성이 되어 둔감해지고 결국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려 결국은 은혜에서 멀어져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는 은혜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을 살려내겠다는 일념으로 예수님의 모진 언사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 여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큰 것은 바로 은혜를 갈구하는 그 갈망입니다.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갈망하지 않는 이유는 은혜가 아닌 다른 것으로 은혜의 빈자리를 충분히 채울 수 있다는 착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매물찬 거절의 말을 듣고 ‘헛! 너무하시네, 예수님 말고도 제가 도움을 구할 곳은 많아요!’하고 돌아가버렸다면 그녀는 예수님께서 딸을 살려주시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간절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예수님에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돈보다 더 절실하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소망을 이루는 것보다 더 급하십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내가 은혜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어서는 아닌가요?

둘째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에게 자신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연중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는 아버지에게 마땅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은혜는 마땅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값진 것을 그것을 자력으로 얻을 수 없음을 알고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으로 우리는 겸손하게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Kyrie eleison(주여, 긍휼히 여기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주의 긍휼하심을 겸손히 구하며 엎드리는 자들입니다.

셋째로, 이 여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부스르기 몇 개와 같은 은혜로도 충분함을 고백합니다. 은혜에 대한 성도들의 잘못된 태도의 결론은 바로 은혜의 값어치를 모르고 허비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가치를 오판해서는 안됩니다. 은혜를 값싼 싸구려 선물로 생각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와 다른 이에게 주어진 은혜를 비교하고 값을 저울질 하는 순간 은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왜 나는 적게 받았는가?라는 생각은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함정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부스르기 몇 개 같아보일지라도 내 삶 전체에 차고 넘치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됩니다.

로마서 5장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는 말씀은 은혜에 대한 놀라운 비밀의 단편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은혜에서 멀리 있는 자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은혜에 겸손히 나아가는 자에게 은혜의 가치는 더욱 빛이 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해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며 이 은혜를 어떻게 누릴지는 온전히 받는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은혜에서 멀어지지 맙시다.

다트머스 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승용